**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가복음 2장 27-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게 됩니다.

잘 되던 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 별 것도 아닌 일로 어색해지기도 하고, 누군가 무심코 건넨 말 한 마디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려는 결정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어쩌나, 내 안정된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무너지면 어쩌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염려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삶의 문제들과 그로 인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내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시는 삶의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히 여기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3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지고 가는 삶의 짐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염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늘 세밀한 손길로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예배시간은 노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시간은 내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다른 것을 섬기려는 유혹과 다른 것에 얽매이는 위험과 다른 것이 유발하는 염려에서 예배는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 온전한 드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한 이 귀한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이라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 날에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20:9-10)**

하나님께서 이처럼 몸소 안식의 본을 보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 본을 따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쉼 없이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아니, 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단지 체력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곤함만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짐을 나 혼자 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실 뿐 아니라, 내 모든 노력의 결과는 내가 아닌 그분의 소관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늘 바쁘다 느끼면서도 또한 늘 역부족이라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하여 이루실 결과가 선하리라는 믿음도 희미해져 가면서, 그 속에 염려가 찾아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노력에 매이는 굴레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 의식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쉰다는 것은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긴 다음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이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해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 본래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옥죄고 벌 주려는 목적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어느 시점부터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 대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의 개념 속에는 ‘안식’보다는 ‘예배’의 의미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냐 주일에 지키냐,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냐 일요일에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이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미국의 기독교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소개하는 다음의 세 가지 영적 훈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고독’과 ‘침묵’과 ‘금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벗어나 실내나 실외에서 편안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 들어갈 때는 일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공부, 기도, 설교준비 같은 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개울가나 해변이나 산속을 걷거나 아니면 편안한 방이나 마당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처음엔 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메우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냥 빈 자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꼭 행동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질근질하고 꿈지럭거리는 것이 잦아들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 잘 있으면 바쁨, 서두름, 고립, 외로움이 위력을 잃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서 몽글몽글 솟아나기 시작하며, 찬양과 기도가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고독 속에 내린 “영혼의 닻”은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견고히 남는다고 합니다.

침묵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없이는 혼자 있을 수 없기에 침묵은 고독을 완성합니다.

침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밀고 당김에 여전히 놀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탈진시키고, 굴레에 묶어 두며,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 집중할 수 없도록 산만하게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말을 그칠 때 우리는 현실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로 이것저것 참견하기보다는 그냥 주목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입과 협상과 질주를 그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고독과 침묵에 강하지 않은 한, 우리의 말과 교제는 안전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금식은 평소의 음식을 상당 기간 동안 상당 정도까지 끊는 것입니다. 고독이나 침묵처럼 금식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금식은 우리의 몸과 전인을 하나님이 직접 유지시켜 주심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우리는 안식이란 그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안식이란 의식적인 ‘아무 것도 안 함’ 가운데서 그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꼭 주일에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안식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서로에게 확보해주기 위해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필요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예배와 안식을 통해 그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안식 가운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